지역우선구매 외면한 나주 혁신도시기관들

■나주 혁신도시 지역우선구매 실적 (단위:백만원·%)

기관명	2019	2020	증감액	증감률
합계	1,110,409	882,387	-228,022	-20.5
국립전파연구원	2,377	671	-1,706	-71.8
우정사업정보센터	1,061	333	-728	-68.6
한전KDN	40,250	13,993	-26,257	-65.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5	19	-16	-45.7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028	581	-447	-43.5
한전KPS	18,292	11,541	-6,751	-36.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89	537	-152	-22.1
한국전력공사	1,016,180	819,678	-196,502	-19.3
한국농어촌공사	4,593	3,758	-835	-18.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055	10,342	-713	-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17	1,716	-1	-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37	1,270	333	35.5
한국콘텐츠진흥원	599	881	282	47.1
한국인터넷진흥원	1,423	2,258	835	58.7
한국전력거래소	7,511	14,340	6,829	90.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7	469	332	242.3

16개 기관 2019년 1조1104억→지난해 8824억·20.5% 줄어
국립전파연구원 71.8%·우정사업정보센터 68.6% 등 11곳 감소
농기평·전력거래소·인터넷진흥원·콘텐츠진흥원 등 5곳 증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16개 기관 가운데 11개사가 지난해 지역우선구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6개 기관·공기업의 '광주·전남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실적은 8823억8700만원으로, 전년1조1104억900만원보다 20.5%(-2280억2200만원) 감소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지역발전계획의 하나로 매년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목표 금액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전년보다 지역우선구매 규모를 줄인 기관은 16곳 중 11곳이었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지역구매 금액이 줄어든 것은 한국전력의 영향이 크다.

한전은 지난해 지역우선구매 전체 금액의 92.9%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8197억원 상당을 지역 업체로부터 구매했는데, 이는 전년(1조162억원)보다 19.3%(-1965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가장 크게 실적이 감소한 곳은 국립전파연구원이었다. 전파연구원 지역구매 금액은 2019년 23억7700만원에서 지난해 6억7100만원으로, 무려 71.8%(-17억600만원) 급감했다.

우정사업정보센터(11억→3억), 한전KDN(403억→140억), 한국문화예술위원회(3500만→1900만) 등도 지역구매 실적이 '반토막' 났다.

한전KPS는 전년보다 36.9% 줄어든 115억원을 구매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2.1% 감소한 5억3700만원을 지역으로부터 사들였다.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농업 관련 기관 대부분도 지역우선구매를 줄였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난해 실적은 5억8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3.5%(-4억4700만원) 감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실적은 46억원에서 38억원으로 18.2%(-8억원) 줄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1억원에서 103억원으로 6.4%(-7억원)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소폭(-0.1%) 줄어든 17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포함한 5개 기관은 지역구매실적이 늘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억3700원에서 이듬해 4억6900만원으로, 3.4배(242.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75억원에서 143억원으로 2배 가까이(90.9%↑) 증가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58.7%(14억→23억), 한국콘텐츠진흥원 47.1%(6억→9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5.5%(9억→13억) 등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들의 광주·전남 구매 실적은 목표 금액(1조1250억원)의 78.4%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구매 목표는 8424억700만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4.5%(-400억원) 줄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공모

콘진원 다음달 1~8일까지 진행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정경미·이하 콘진원)은 '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스토리 부문' 공모를 오는 다음달 1~8일 진행한다.

올해 13회째 열리는 이번 공모는 콘텐츠로 사업화 가능한 원천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부문은 공연, 만화(웹툰), 애니, 영상(드라마, 영화 통합), 출판 총 5개 분야로 기성 및 신인 불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및 팀·법인이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

심사는 독창성, 완성도,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분야 확장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대상(대통령상) 1편,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편, 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8편, 청년작가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2편을 선정하며 상금 3억5000만 원 규모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병원으로 찾아가는 '사학연금 학교'

퇴직급여 종류·지급 연령 등 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학연금 학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전국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사학연금 가입자이다.

10일을 시작으로 15일, 17일 3차례에 걸쳐 서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강당에서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에서는 사학연금제도 운영의 기본지식과 부담금·퇴직급여 등 운영현황, 재직 중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접할 수 있다.

과정은 ▲연금제도 운영의 기본요소(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부담금) ▲퇴직급여의 종류 ▲연금지급의 개시연령 ▲대여의 신청대상·상환방법 ▲연금 제도 개혁 등 재정안정화 방안 ▲재해보상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마철 젖은 신발 '슈드레서'에 넣어주세요"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층 가전매장에서 신발 냄새 제거와 99.9% 살균 효과를 내는 '슈드레서'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한전, LNG 복합화력기술로 대기오염 잡는다

오염물질 최대 90% 감소
2023년까지 기술 개발 목표

한국전력은 최근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NG복합화력은 발전기가 정상운전 때는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발전기를 기동(시작)할 때는 일시적으로 오염물질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기 기동 때는 운전 때보다 배출가스 온도(200℃)가 낮아 환원제와 반응성도 약해져 대기오염물질 제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기술은 기동할 때 낮은 온도에도 반응할 수 있는 산화촉매(일산화탄소 등을 태우는 촉매)와 탈질촉매(질소산화물을 제거해주는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이 현재보다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한전은 기대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2023년까지 기술을 개발해 2024년부터 실증 시험을 거쳐 신규 LNG 복합화력에 적용하거나 기존 설비를 대체할 계획이다.

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되는 추세를 반영해 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면서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지역 레미콘 운송단가 4000원 인상 합의

레미콘 제조사·운송사업자 협약

광주지역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가 운송단가 인상에 합의했다.

15일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사업자는 각 사별 운송단가를 기존보다 4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레미콘 운송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건설현장은 레미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공사차질 등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레미콘 운송은 지역 건설현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타협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국 각지에서는 레미콘 운송단가를 두고 운송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제조사와 운송사업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영광의 경우 운송사업자들이 레미콘공장 진출입을 봉쇄하는 파업으로 고소·소송전이 벌어졌고, 장마철을 앞두고 준공이 임박한 수해복구 공사현장도 공사 중단 및 공기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투자하실 분! 모십니다

▶ 경기/수도권 지역

▶ 급매물/경매 입찰·낙찰 특수물건

▶ 투자금 - 3억 이상

▶ 수익금 - 월1부 법적보장

▶ 원금 - 법적보장(담보1순위 또는 충분한 담보제공)

문의. 010-3605-5000